



특허청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 일시	2022. 4. 24.(일) 12:00	배포 일시	2022. 4. 22.(금) 14:30
담당 부서	특허심사기획국 가전제품심사과	책임자	과 장 송대중 (042-481-5758)
		담당자	사무관 장호근 (042-481-8187)

의류관리기 분야 특허출원,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엘지전자 1위, 삼성전자 2위, 코웨이 3위 등 케아-신가전 세계시장 주도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생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매일 입을 옷을 간편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류관리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활기를 띠고 있다.

* 국내시장 규모는 294억원('15년)→3937억원('20년)으로 5년새 13배 증가,
해외 출시국은 3개국('15년)→20개국('20년)으로 7배 증가(엘지전자 제공 자료)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5대 특허청(IP5)에서 의류관리기 특허출원은 국내에 첫 제품이 출시된 '11년 이후 9년 동안('11~'19) 연평균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붙임 1]

○ 엘지전자가 최초로 의류관리기를 출시했던 초반에는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집에서 매일 편하게 옷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의류관리기가 크게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경쟁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 특허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연간 30건 내외로 출원되었으나, '15년에 87건 출원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년에는 225건이 출원되었다.

- '15년부터 특허출원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에 진출하려는 후발업체들과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선두업체가 함께 특허 확보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세계 5대 특허청(IP5)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붙임2]

○ 전체출원 786건 중 우리나라 출원인이 642건(82%)을 출원하여 압도적인 세계 1위이며, 중국이 69건(9%), 유럽 46건(6%) 순이다.

-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 출원건의 대부분을 외국에도 출원하여 국내출원 대비 국외출원 비율*이 90%에 달한다.
- * 국내출원 338건 중 국외출원 304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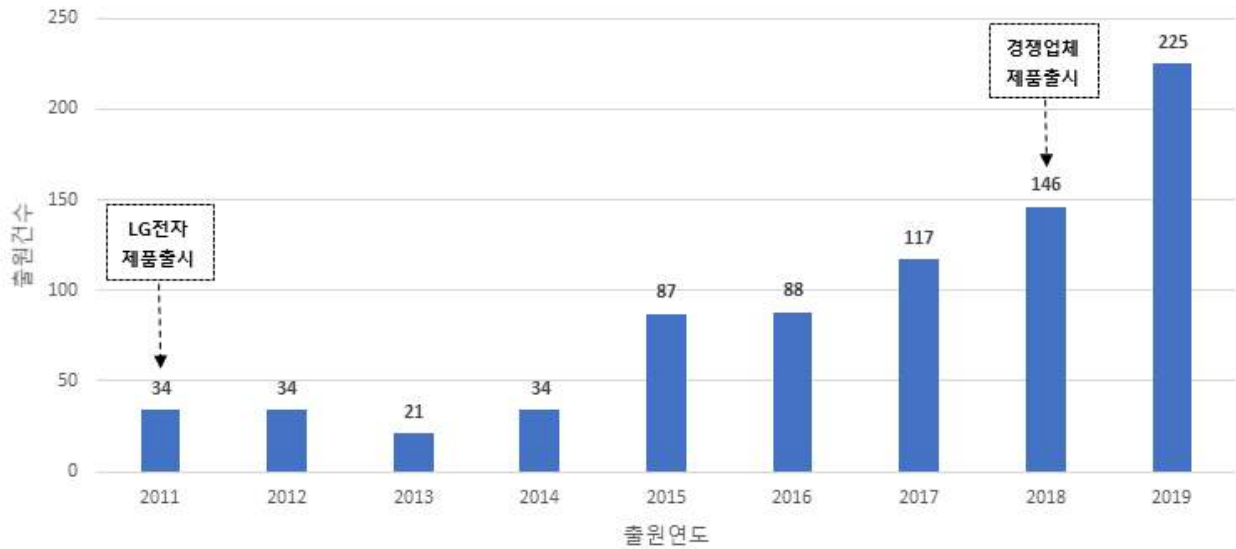
□ 주요 다출원기업 기술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붙임3]

- 세계 1위인 엘지전자는 의류관리기 내외부 구조(캐비닛 내외부의 세 부적인 구조)에 대한 출원이 136건, 의류거치수단 구조(옷걸이에 진동을 가해 먼지를 털어내는 무빙행어와 바지 칼주름을 잡기 위한 프레서) 관련 출원이 123건, 공기스팀공급 기술(스팀과 열풍 공급을 제어하기 위한 공기스팀공급 기술) 출원이 101건을 차지하며 의류관리기 기술 전반에 걸쳐 탄탄한 특허 장벽을 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에는 의류의 오염도나 구김 정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최적의 의류관리 코스를 실행하는 지능형 의류관리 기술도 44건을 출원하여 정보통신(IT) 융·복합 특허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2위인 삼성전자는 옷걸이 진동 대신 강력한 바람을 내뿜어 먼지와 구김을 없애주는 공기스팀공급 기술에 대한 출원이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위인 코웨이는 다른 출원인들에 비해 실내제습청정 기술 관련 가장 많은 8건을 출원하였다.
- 한편, 중국의 하이얼은 오존을 이용한 탈취방향살균 기술을 31건 출원하여 선두주자와 차별화되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허청 가전제품심사과 장호근 심사관은 “의류관리기와 같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가전에 대해서는 에어프라이어 사례를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P사(社)는 세계 최초로 에어프라이어를 개발하여 출시했지만 ‘airfryer’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경쟁사의 특허침해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붙임 4]

- “우리 기업들이 의류관리기에 이어 신발관리기, 식물재배기, 맥주 제조기 등 케이-신가전 제품들을 세계 시장에 내놓는 것은 우리기업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에 더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후에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1. IP5 전체 특허출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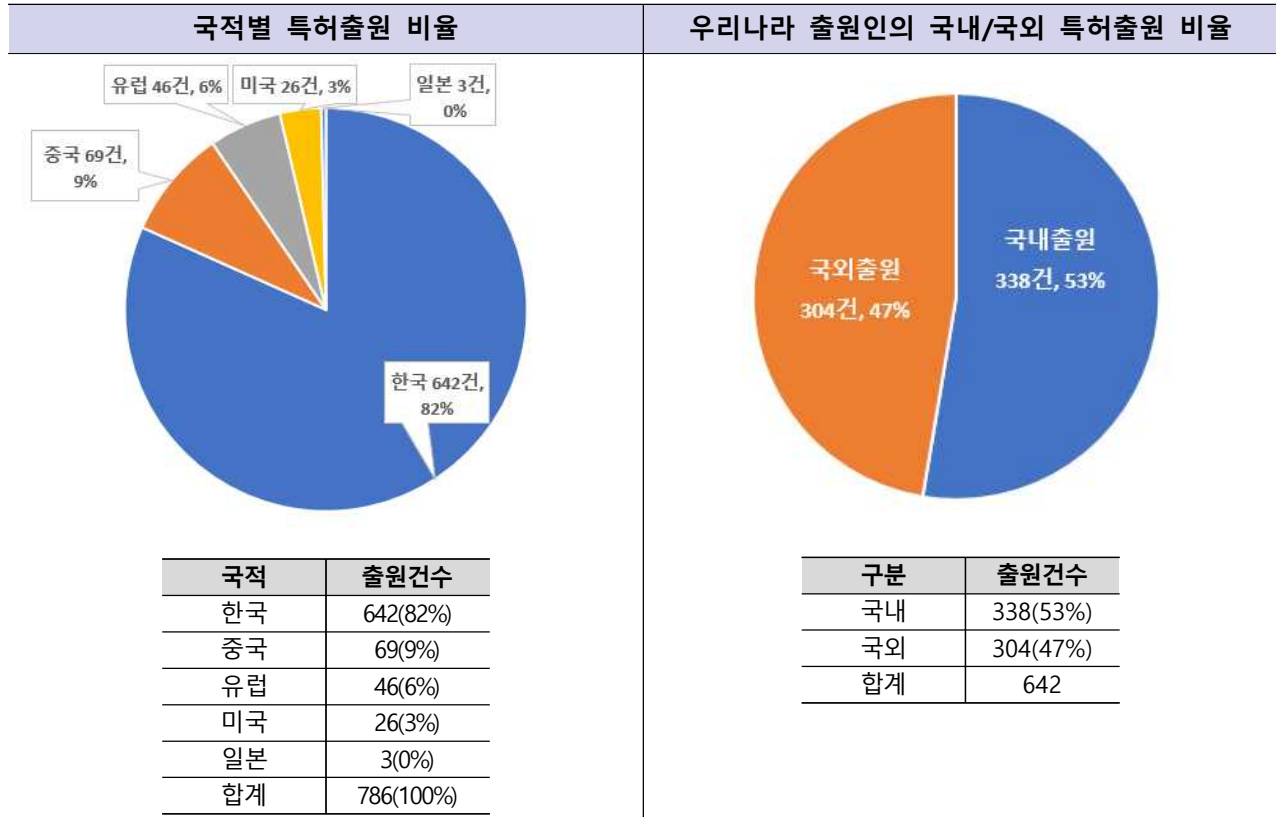


※ 미공개건이 포함된 '20년, '21년 출원은 제외함

1-2.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

구분	한국(KIPO)	미국(USPTO)	중국(CNIPA)	유럽(EPO)	일본(JPO)	합계
'11년	15	7	6	6	0	34
'12년	11	8	6	5	4	34
'13년	9	3	1	6	2	21
'14년	18	6	6	4	0	34
'15년	13	14	22	22	16	87
'16년	33	18	18	14	5	88
'17년	42	19	28	23	5	117
'18년	96	13	23	9	5	146
'19년	111	52	20	34	8	225
합계	348	140	130	123	45	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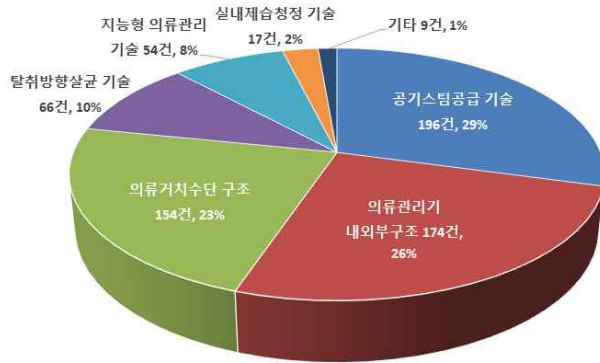
2-1. IP5에서 우리나라의 특허경쟁력



2-2. 주요 출원인(TOP10) 현황

순위	출원인	국적	한국(KIPO)	미국(USPTO)	중국(CNIPA)	유럽(EPO)	일본(JPO)	합계
1	LG	한국	187	84	61	86	27	445
2	SAMSUNG	한국	49	22	4	10	1	86
3	COWAY	한국	43	3	2	2	0	50
4	HAIER	중국	7	7	12	7	9	42
5	PHILIPS	네덜란드	2	3	3	3	3	14
6	WHIRLPOOL	미국	0	9	1	2	0	12
7	SK	한국	6	0	0	0	0	6
8	CHENGDU MALSS	중국	0	0	5	0	0	5
8	BOSCH	독일	0	0	2	3	0	5
8	V-ZUG	스위스	0	0	0	5	0	5

3-1. 기술분류별 출원 현황



기술분류	출원건수	비율
공기스팀공급 기술	196	29%
의류관리기 내외부구조	174	26%
의류거치수단 구조	154	23%
탈취방향살균 기술	66	10%
지능형 의류관리 기술	54	8%
실내제습청정 기술	17	3%
기타	9	1%
합계	670	100%

※ 10대 주요 출원인의 670건(전체의 85%)을 분석한 결과임

3-2. 10대 주요 출원인의 기술분류별 출원 현황

기술분류	LG	삼성	코웨이	하이얼	필립스	월풀	SK	청두 MALSS	보쉬	V-ZUG	합계
공기스팀공급 기술	101 (22.7%)	41 (47.7%)	27 (54.0%)	3 (7.1%)	9 (64.3%)	4 (33.3%)	5 (83.3%)	3 (60.0%)	-	3 (60.0%)	196 (37.4%)
의류관리기 내외부구조	136 (30.6%)	25 (29.1%)	2 (4.0%)	2 (4.8%)	1 (7.1%)	5 (41.7%)	1 (16.7%)	1 (20.0%)	-	1 (20.0%)	174 (29.7%)
의류거치수단 구조	123 (27.6%)	11 (12.8%)	11 (22.0%)	1 (2.4%)	-	3 (25.0%)	-	-	4 (80.0%)	1 (20.0%)	154 (18.4%)
탈취방향살균 기술	26 (5.8%)	4 (4.7%)	-	31 (73.8%)	4 (28.6%)	-	-	1 (20.0%)	-	-	66 (6.6%)
지능형 의류관리 기술	44 (9.9%)	4 (4.7%)	1 (2.0%)	5 (11.9%)	-	-	-	-	-	-	54 (5.4%)
실내제습청정 기술	8 (1.8%)	1 (1.2%)	8 (16.0%)	-	-	-	-	-	-	-	17 (1.6%)
기타	7 (1.6%)	-	1 (2.0%)	-	-	-	-	-	1 (20.0%)	-	9 (0.9%)
합계	445	86	50	42	14	12	6	5	5	5	670

① 'airfryer' 상표 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판결(특허법원 2014허4876, '15.4)

P社가 에어프라이어 제품에 대해 상표 출원한 'airfryer'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 명칭으로 독점 사용을 불인정한 사례

- (심판청구인) 네덜란드 P社
- (쟁점) 'airfryer'라는 명칭이 특정 기업의 상표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지 여부
- (판결요지) 'airfryer' 명칭 자체가 '공기를 이용하여 튀김요리를 하는 조리기구'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어 전기식 튀김기의 특성이나 조리 방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다수 경쟁업체에서 비슷한 기능의 튀김기에 이 명칭을 붙여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 명칭을 P社의 상표로 인식한다고 볼 수도 없음

② 에어프라이어 특허침해 불인정 판결(광동성 고급인민법원, '17.8)

P社의 에어프라이어 특허가 가진 보호범위에 경쟁사 제품의 기술 특징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침해를 불인정한 사례

- (당사자) 원고 : P社(특허권자), 피고 : 중국 J社
- (쟁점) P社 등록특허에 기재된 용어가 나타내는 기술 특징과 경쟁사 제품의 기술 특징이 동일한지 여부
- (심결요지) 등록특허에 기능적으로 기재된 에어 가이드 부재는 공기의 흐름이 수직상승 하는 방식인 데 반해, J社 제품은 나선형 회전 방식으로 기류 방향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